

갱갱매미의 세레나데를 들은적 있나요?

신 유 항 / 경희대 명예교수

(1) 물방개

Cybister japonicus Sharp

물방개는 딱정벌레목 물방개과에 속하는 몸길이 40mm 내외의 곤충이다.

평지나 산에 있는 못이나 늪 또는 물흐름이 느린 내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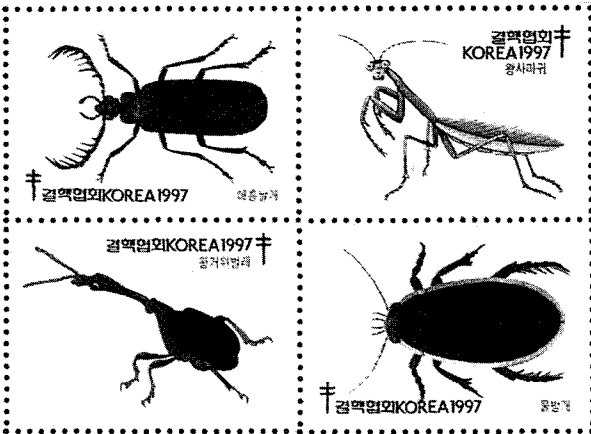
몸 모양이 유성형으로 뒷다리에 긴 털이 나 있어 물속을 헤엄치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때때로 날기도 하는데, 수면에 앞날개끝을 밀어 몸체와의 사이에 공

기를 넣고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쉰다.

보통 곤충은 배 옆에 숨문이 있으나 물방개는 배등쪽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성충·유충 모두 육식성으로 곤충을 잡아먹는데 때로 죽은 물고기나 약해진 물고기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

수컷은 앞다리에 흡판을 갖고 있어 암컷과 쉽게 구별된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대만, 중국, 시베리아, 아무르 등지에 분포한다.



(2) 애홍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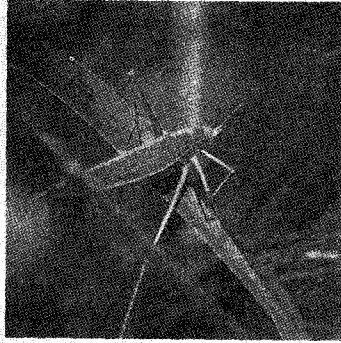
Pseudopyrochroa rubricollis Lewis

애홍날개는 딱정벌레목 홍날개과에 속하는 몸길이 7~10mm의 곤충이다.

더듬이는 빗살모양이며 몸과 다리는 모두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적갈색, 딱지 날개는 홍적색으로 외관상으로는 딱지 낀 듯하고 정열적인 색상이다.

성충은 숲속을 날아다니며 마른 죽은 나무나 쓰러진 나무에서 볼 수 있다. 유충은 죽은 나무의 나무껍질 밑에서 산다.



결핵염과 KOREA 1997 베짱이
 베짱이. 「이습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짱이는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오른쪽은 ♀ 크리스마스벌 (도안. 장원두)

(3) 베짱이

Hexacentrus unicolor Serville

베짱이는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몸길이 (날개끝까지) 30~36mm 되는 곤충이다. 몸은 연한 녹색으로 머리에서 앞가슴 등에 짙은 갈색줄이 있다.

성충은 8~10월에 걸쳐 키가 낮은 나무나 숲에서 살며 “씨-쩨·씨-쩨”하며 높은 소리로 운다.

우리나라에는 베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8종이 알려져 있다.

베짱이는 이습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로도 유명한데 이 우화를 통해 어린시절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베짱이처럼 게으르지 말게 살아야겠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기도 하였다.

이처럼 베짱이는 우화에서나마 펍 역을 올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실은 게으르게 보이나 그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으로 대를 이어가며 별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우화는 우화로서 뜻이 있으되 실화는 아니란다.

(4) 왕사마귀

Tenedera aridifolia (Stoll)

왕사마귀는 사마귀목 사마귀과에 속한다. 우리나라에는 사마귀, 좀사마귀, 왕사마귀, 황나사마귀 등 4종류의 사마귀가 있다.

녹음 우거진 늦여름철 산길을 걷다 보면 사마귀를 만나게 되는데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세모꼴 머리, 날카로운 가시가 줄지어 있는 앞다리, 그리고 도전적인 자세 등으로 성큼 잠기가 망설여지는 곤충이다. 사마귀는 풀잎이나 나무잎 따위에서 먹이가 될 곤충들이 다가오기를 끈질기게 기다린다.

초록색으로 위장한 몸은 꽃에 날아와 정신 없이 꽃꿀을 빠는 나비나 나무가지에서 쉬고 있는 매미, 풀잎 속 베짱이

등의 눈에 잘 띠지 않으므로 가까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먹이가 될 곤충이 공격권내에 들어 오면 날카로운 앞발로 콧 덮친다. 잡힌 곤충은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 쳐도 힘껏 죄어진 앞다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몸부림 치면 칠수록 앞다리에 있는 가시는 더욱 깊이 죄어든다. 그러므로 풀밭에 사는 곤충들에게 사마귀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다. 이렇듯 무서운 어른 사마귀도 알에서 갓 까져나올 땐 힘 없는 새끼에 불과하다.

5월이 되면 알집에서 나온 새끼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아직 걸음걸이도 완전치 못한 애벌레에게 이 때는 아주 위험한 시기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개미와 거미가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미들은 어린 애벌레에게 무섭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고 가는데 애벌레는 꿈쩍도 못한다. 이런 고비를 겨우 넘긴 애벌레는 이제 자기보다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커간다. 그러나 새들이 또 노리고 있다. 들판의 폭군과도 같아 보이는 사마귀의 일생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다.

(4) 갱갱매미

Tibicen japonicus (Kato)

이 매미는 매미목 매미과에 속하는데 전라남도 백양사일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매미와 유사한 참갱갱매미처럼 넓은 범위에 걸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길이는 날개끝까지 65mm내외이다. 7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걸쳐 나타나며 “기-”로 들리는 연속음을 낸다.

꽤 희귀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외에는 일본에 분포한다.

매미 울음소리는 듣는 이에 따라서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게도 하고 짜증스러운 소음으로 느끼게도 한다. 매미들은 사람들의 느낌과는 상관 없이 그들의 방식에 따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울고 있다. 그 울음의 뜻은 대개 아래와 같이 풀이되고 있다.

첫째로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우는 것은 수컷이고 암매미는 울지 않는다. 암매미는 숫매미의 울음소리에 매료돼 수컷에게 다가간다.

둘째로 같은 종끼리 모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여야만이 그만큼 짝짓기의 기회가 늘기 때문이다.

셋째로 동료들에 대한 안전신호이다.

마음껏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위험이 없음을 뜻한다.

넷째로는 집단을 호적한 장소로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다섯째로는 다른 종과의 교잡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하여 종마다 울음소리가 다르다. 이외에도 잡힌 매미들의 비명소리는 잠은자에 대한 위험인 동시에 동료에 대한 경보구실 역할을 한다고 한다.

(5) 십자무늬 긴노린재

Tropidothorax cruciger
(Motschulsky)

이 노린재는 노린재목 긴노린재과에 속한다. 몸등면이 짙은 검은색과 혈홍색의 무늬로 이루어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곤충이 아닐 수 없다.

몸길이는 9~10mm로 성충은 여름철에 산지에서 모여서 살며 박주 가리 등에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울릉도에서 볼 수 있으며 그외에는 일본, 중국, 시베리아 남동부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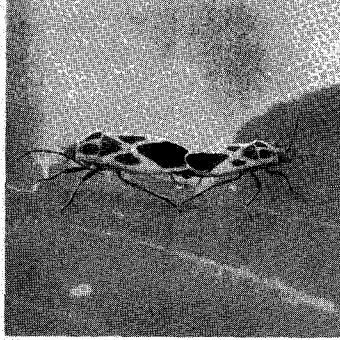
(6) 왕거위벌레

Paracycrotrachelus longiceps
(Motschulsky)

이 곤충은 딱정벌레목 거위벌레과에 속한다. 목을 길게 뻗은 거위모양으로 생긴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껍 특이하게 생긴 딱정벌레이다.

성충은 몸길이가 7~10mm로 4월과 7월 연2회 나타난다. 성충은 개암나무 잎에 알을 하나씩 낳고 두루말이 모양으로 잎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요람속에서 알이 부화되어 만 잎을 먹고 큰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국외에는 일본, 중국, 아무르, 연해주 등지에 분포한다.



십자무늬 긴노린재. 몸등면이 짙은 검은색과 혈홍색의 무늬로 이루어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곤충이다. 사진 오른쪽은 '97 크리스마스철

(7) 장수말벌

Vespa mandarinia Cameron

이 벌은 벌목 말벌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사는 벌중에서 제일 큰 종류이다.

몸길이는 수컷이 27~37mm, 암컷이 37~43mm로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성충은 4월에서 10월에 걸쳐 우리나라 어디서나 살고 있으며 참나무류의 나무진이 나오는 곳에 여러마리가 집을 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집은 속이 빈 나무속, 땅속, 인가의 벽이나 추녀밑에 둥글게 만든다.

윙 윙 거리며 날면서 때로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 공격적이고 독성도 아주 강하다. 암컷은 고목나무 속 빈곳에서 겨울을 지낸다.

국외로 일본, 중국, 인도에 분포한다. 卩